

확인 사실·성폭력 등 증거 확보...일부 부실 조사 '한계'



5·18 자랑스런 한국의 역사

44년만의 진상규명, 불씨 살려야 <상> 진상조사위 성과와 문제점

정부 주도로 추진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보고서가 44년만에 나왔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공개된 개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성과도 있으나 한계점도 뚜렷하다는 것이다. 일부 조사 결과를 양비론에 의존해 결론을 못 내거나 조사가 미진했던 점도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오히려 왜곡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민들

정부 주도 군·경 성폭력 첫 확인 조사위, 광주일보 자료 받아 계엄군 자위권 주장 뒤집기도

발포 명령자 끝내 특정 못하고 보고서가 오히려 왜곡 단초 제공 피해자 아닌 가해자 중심 조사 지적

사이에서는 보고서에 대한 보이콧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2일 현재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을 끝으로 4년간의 활동 종료하고 오는 6월 발간을 목표로 종합보고서를 제작 중이다.

진상조사위는 직권조사 과제 17건 가운데 11건

은 '진상규명',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신청 사건 216건에 대해서는 82건을 '진상규명' 결정하고 34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으며 79건은 각하, 21건은 취하했다.

진상조사위 성과로는 대량의 계엄군 진술과 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최초로 정부 주도로 군·경 성폭력 사실 확인했다는 점, 계엄군이 민간인을 '확인 사실'하고 '조준 사격'하는 등 학살을 자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점 등이 꼽힌다.

진상조사위는 광주일보로부터 1980년 5월 금남로 현장 사진과 필름 3600여장을 전달받아 이를 근거로 계엄군의 '자위권' 주장을 뒤집기도 했다. 계엄군이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 44분께 금남로에서 장갑차(M113)에 설치된 12.7mm 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사진을 전달받아 '21일 오전까지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군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행방불명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행방불명자

지도'를 만들고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한 채혈을 실시해 암매장 제보현장에서 발굴, 수습된 유해와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했다.

5·18민주묘지 무명 열사 묘역에 묻혀있는 5명 중 고(故) 신동남씨와 양창근·김재영군의 신원을 확인한 점, 북한간첩 투입설 등 5·18왜곡·편향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발포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광주시민을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기존 조사 결과보다 퇴보한 결론을 내기도 해 논란이 됐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의 핵심인 '권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법원에서 내린 판단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권일병을 친 장갑차가 계엄군 장갑차인지 시민군 장갑차인지 특정할 수 없다', '총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있다'며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에 대한 조사보

고서는 한 보고서 내에서 나주 남평지서·영산포지서 등 피탈 시점에 대한 결론을 엇갈리게 진술하고 '진위 여부 확인 불가' 결론을 내리는 등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1980년 5월 19일 광주교 앞 최초 발포에 대해서는 '시민군이 장갑차에 불을 지르자 계엄군이 방어차원에서 자체 발포한 것'이라고 기술했으며, 5월 20일 광주역 앞 최초 집단발포와 관련해서도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핵심 인물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5·18 유공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이 없는 '실종자'가 5·18 사망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등 오류가 발견됐다", "무기고 '피습', 교도소 '습격' 등 계엄군들 입장에서 쓰는 단어들만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군의 왜곡된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바람에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등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24 광주인권상 수상자에 스리랑카 여성인권운동가 수간티니

2024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에서 활동하는 타밀족 여성인권운동가 수간티니 마티야무탄 탕가라사(56)가 선정됐다.

2024 광주인권상심사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간티니는 '아마라'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권의 향상, 스리랑카의 타밀족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각종 시위를 주도해 왔다. '아마라'는 타밀어로 '존엄성을 향한 멈추지 않는 투쟁'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간티니는 스리랑카 내전이 한창이었던 1987년부터 타밀 반군인 '타밀 일람 해방 호랑이'(LTTE)에 소속돼 고향 땅을 되찾고 타밀족 여성들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비폭력 시위를 했다.

내전이 끝난 직후인 2009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간티니는 파피아마두 수용소에 불법 구금돼 강제로 눈을 가린 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출소 이후 수간티니는 '아마라'를 조직하고 스리랑카 정부의 폭력과 범죄를 폭로하며 국제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끌었다.



스리랑카 타밀족 여성인권운동가 수간티니 마티야무탄 탕가라사. <2024 광주인권상심사위원회 제공>

송선대 2024 광주인권상 심사위원장은 "수간티니의 인권향상 노력에 지지와 경의를 표한다"며 "스리랑카 군이 자행한 대량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연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기념일엔 광주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광주시가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는 18일 광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 운영한다.

시는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근거로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분야별로 흩어진 5·18 관련 11개 조례를 통합한 것이다.

19조 3항에서는 5·18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한

경유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 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 기념일이자 지방 공휴일인 5월 18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국에서 5·18 묘역 등을 찾는 수만 명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임승차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재현씨 올해도 5·18민주묘지 참배 2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현씨가 무명열사 묘를 참배하고 있다. 재현씨는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참배를 해 왔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병원 '주 1회 휴진' 안 한다

전남대병원은 다음주로 연기

'주 1회 휴진'이 전국 상급병원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번주 광주지역 상급병원에서는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 병원은 '주1회 정기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3일 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전남대병원도 실질적으로 휴진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일 조선대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 '주 1회 정기 휴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대위는 "교수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환자 불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판단에서 기존 52시간 준법근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지만, 당분간 비대위에서 계속 보관하기로 했다. 의대학생들의 유급조치나 전공의들의 면허정

지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사직서에 대한 논의 다시 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전남대병원은 3일로 시행 예고된 '주1회 정기 휴진'을 하루 앞두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을 설득에 나서 이날 정기휴진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모든 진료과가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래 예약 환자들에게 아직 휴진 일정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다만 전남대병원측은 다음주부터는 외래진료 예약 환자들에게 공지를 한 뒤 금요일을 정기 휴진일로 하는 진료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감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감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감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감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